

기도

1. 사랑의 빛만 지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사랑으로 내 마음 속의 어둠을 밝혔던 경험을 나눠주세요.

신앙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울과 유대인들은 역사의 종말을 믿었지만, 대부분의 헬라인들은 역사가 계속되거나 순환을 반복한다고 믿었다.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구원의 때가 임박하였으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것을 촉구한다.

구역 공과

2022년 12월 4일

사랑의 빛만 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사랑의 빛만 지자

로마서 13장 8-11절 (찬15장, 491장)

하나님께서서는 바울을 통해 사랑이 율법의 근본이며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갹기 위해 힘쓰고, 그 사랑으로 심령의 어둠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8-10절).

하나님께서서는 바울을 통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8절a). 이처럼 사랑의 빛만 지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미 사랑의 빛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자로써 이를 갹아야 합니다. 빛은 빌린 대상에게 갹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다른 이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베풀며 갹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빛진 자임을 깨닫고 이 빛을 갹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하는 모든 것이 빛이 된다는 뜻입니다. 빛진 자는 채주(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된다 했습니다(잠22:7).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면 미움과 시기가 빛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와 그것들의 종이 되어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을 붙들면 물질에 매여 넘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사랑이 빛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랑의 종이 되어 사랑에 매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의 세계는 빛과 생명의 세계이고 기쁨과 평안이 총만한 세계이기 때문에, 사랑에 빛지고 사랑에 매인 성도는 기쁨과 평안,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행하여 사랑에 빛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사랑의 세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사랑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고 하시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8-10절). 율법의 근본이자 하나님 말씀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10절a). 악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사랑으로 총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당시 율법을 잘 알고 가르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당한 사람을 지나쳤던 것처럼, 사랑이 없는 율법은 가식이고 헛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눅10:25-35). 그리고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셨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11절).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4:12).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 보다 가까웠음이라”는 말씀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11절b).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랑의 빛이 아니라 어두운 죄악으로 가득 찬 밤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죄를 사랑이라 포장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빛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속의 미움, 시기, 우울과 같은 어두움은 사랑의 빛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마음에 위로가 임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총만해 집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심령에 빛을 밝게 비춰서 심령을 항상 깨우시기 바랍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사랑의 빛만 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빛진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 기쁨과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잠들고 마음이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빛을 회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서 사랑의 빛을 갹으시기 바랍니다.

